

목욕탕 안 세신실. 손님이 없자 재민의 때를 밀어주고 있는 정은. 서로의 몸을 간지럽히며 화기에 애한 모습이다. 그 때, 다가오는 한 젊은 여자.

여자 (양칼진 목소리로) 아줌마. 애 아줌마 아들이에요?

정은 (쳐다보는)

여자 애몇살이에요? 암만봐도 초등학생은 돼 보이는데 다 큰 남자

애를 이렇게 막 들여보내도 돼요?

정은 어머머? 몸만 컸지, 아직 애기인 애한테 무슨... 아가씨는 애가

남자로 보여요?

여자 그럼 재가 남자지, 여자에요!?

점점 격앙되며 험악해지는 분위기. 결국 신경질적으로 한마디를 남기며 떠나는 여자.

여자 암튼, 빨리 안 내보내면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돌아서는)

정은 (조용히) 저 싸가지 없는 년이...